

126회 겨울대공연 무대팀 인수인계서

무대팀장 64기 조운서

0.

126회 겨울대공연 <친절한 식구들> 무대팀장을 맡았던 64기 조운서입니다. 이번 126회 겨울대공연은 1월 2일 시파티를 시작으로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공연에는 가벽을 2종 설치하였고, 비교적 많은 대도구와 무대 소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스케치 및 디자인 픽스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했고, 가벽 및 대도구 제작 또한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무대팀은 항상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일수록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팀원의 수보다는 팀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팀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 또한 무대팀장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이 무대를 위해 도와주러 올 것입니다. (p.s. 126회 대공연 키스탑진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팀원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팀장님의 컨디션에 오히려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무대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단순히 적은 인원이 걱정되어 강제로 데려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점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공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대팀은 팀장의 실행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겨야 하는 것이 많다 보니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무대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연출에게 컨펌을 요청하세요. 컨펌을 받았고 이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느껴진다면(그렇다고 느껴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하기는 합니다), 정해진 즉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대팀 같은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물품들이 그 수가 많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처음으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느껴지면, 팀 회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활발히 의견을 나눈 후 바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이 픽스가 되었다고 해도, 제작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거듭할 것입니다. 중간에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1. 무대팀 진행 과정

제126회 겨울대공연 일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워크샵은 물론 기존 정기대공연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빠듯하게 진행되었던 일정으로, 다음 무대팀장님은 126회 정기대공연의 무대팀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적으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주차 : 무대 스터디 / 대본 리딩 / 무대의 분위기 및 레퍼런스 찾아오기

2주차 : 대본 분석 / 무대 스터디 / 극장 답사

3주차 : 전체적인 무대 디자인 구상 / 대도구 레퍼런스 찾아오기 / 아이디어 스케치

4주차 : 아이디어 스케치 디벨롭 / 무대 디테일 스케치 공유

10주차 : 공연 주 / 무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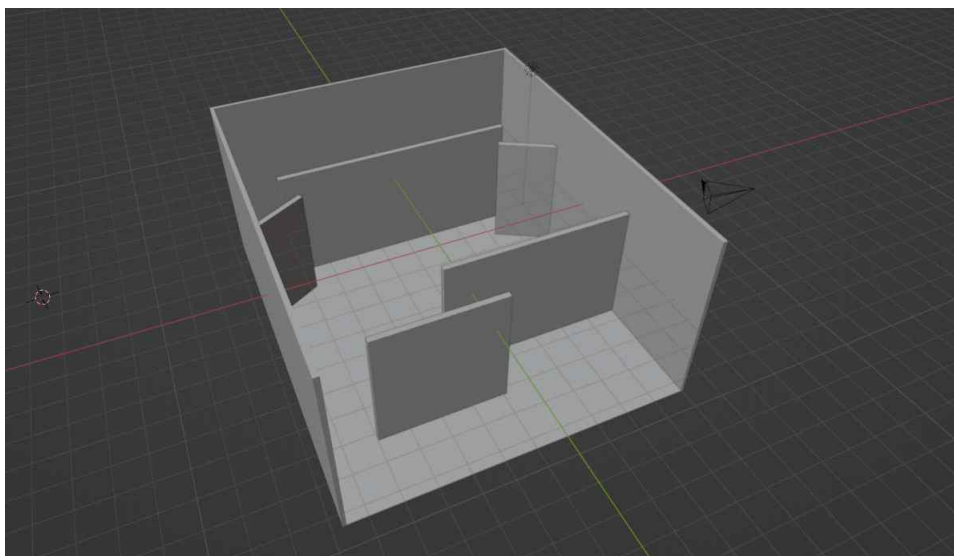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4	25	26	27	28	29	30
31	1/1	2	3	4	5	6
	신청	시파티	대본 리딩 및 레퍼런스			
7	8	9	10	11	12	13
			무대팀 회의			
진체적인 무대 디자인 구성						
14	15	16	17	18	19	20
			무대팀 회의			
			극장 답사			
무대 디자인 피드백		아이디어스케치 및 대도구 디벨롭			공연진 MT	
21	22	23	24	25	26	27
			무대팀 회의			
조안 완성 및 대대일 결정 & 대도구 구현 방법 결정						
28	29	30	31	2/1	2	3
			무대팀 회의			
연습 참관 기간						
무대 디자인 피드백		사진 제작 전 최종 피드백				재료구매
4	5	6	7	8	9	10
연습 참관 기간						
재료 구매 & 대도구 및 벽 사진 제작					설 연휴	
11	12	13	14	15	16	17
설 연휴		대도구 및 사진 제작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2
				시연회	상월월	
대도구 및 벽 사진 제작						
3	4	5	6	7	8	9
	개강					
대도구 및 벽 사진 제작		무대 설치			리허설	공연 기간
10						
공연 기간						
대관 기간						

126회 겨울대공연 준비는 총 10주차로 진행되었으며, 설날과 공휴일이 끼어 있어 실질적으로 7-8주의 플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서로 친한 사이 일지라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 간단한 자기소개와 근황 공유를 시작으로,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 이후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팀원이 모두 모여 함께 공연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무대팀의 시작과 단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대팀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팀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든, 의견을 존중하며 판단하고 의견을 모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126회 겨울대공연 무대팀은 팀장을 포함해 10명의 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공연용 가벽의 형태를 새로 제작해야 해서 무대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팀원을 불러 모았는데, 10명의 인원 모두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무대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팀장은 스스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팀원이 돕지 않는다고 해도 팀장 또한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무대팀장의 자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느꼈습니다.

무대팀은 공연 2주 전에 바짝 일한다는 생각이 많을 수 있으나,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시작하여 여유롭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회의 주간에는 물론, 제작 중에도 무대팀 세부 계획에 변동 사항이 자주 있었습니다. 대도구 제작 방법이라든지, 무대 소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제작 중에도 계속해서 논의하며 수정했습니다. 결석한 팀원들에게도 이러한 변동 사항을 바로 공유하며 바뀐 세부 내용에 대해 팀원들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 같은 내용의 논의를 반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는, 결석으로 인해 회의 내용을 따라오지 못한 팀원들은 아예 따라오지 못해 이후에 아예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또는 제작을 빠진 팀원들에게 한두 가지, 작은 것이라도 무대 제작을 하는 데에, 무대팀원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다음 회의 및 제작 전까지 내용을 꼭 숙지시키길 바랍니다.



- 팀회의 초반에 잡아두었던 기본 무대 틀입니다!

2. 제반 조사

무대팀은 꼭 무대팀 초반에 제반 조사를 통해 울전과 명륜 동아리방에 보유 중인 물품과, 사용할 수 있는 가벽과 합판, 목각의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아리방에 활용할 만한 대도구 및 소품이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회의 초반에 동방을 잘 둘러보고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대도구를 만드는 재료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반 조사는 주로 팀회의 0~2주차에 진행하면 됩니다. 제반 조사 시에 해야 할 것은,

- ① 사용 가능한 가벽의 개수 확인, 이러한 가벽의 크기 기록
- ② 사용 가능한 합판의 개수 확인, 이러한 합판의 개수 기록
- ③ 사용 가능한 각목의 개수 확인, 이러한 각목의 개수 기록
 - 각목의 경우, 각목을 대도구 만드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정확한 개수의 길이가 필요하지만, 오직 지지대의 용도로만 생각한다면, 사용 가능한 각목의 개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만, 그 수가 충분한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④ 사용 가능한 못의 개수 확인 (중못, 대못), 케이블타이의 개수 확인
- ⑤ 보유 중인 페인트의 색상 및 양, 사용 가능한 페인트붓의 개수
- ⑥ 이외에 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정도 확인하며 기록하면 됩니다. 테이프, 못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다면 기획팀장과 상의 후 미리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3. 대도구 관련

이번 126회 여름대공연에서는 가정집을 배경으로 1막, 야산을 배경으로 2-3막이 진행되었습니다.

연출과 협의하여 무대 디자인을 빠르게 결정했고, 가벽 제작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대도구는 가벽을 제작하면서 틈틈이 구비 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대도구가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미리 구비 해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할 겁니다.

2-3막에서는 대도구로 무덤과 관을 사용했습니다. 관은 합판과 각목을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관은 제작이 비교적 쉬운 대도구라, 이 정도의 대도구 제작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덤에 관해서는 약 2달간 논의와 수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계획과 틀어진 부분이 있어 공연 3-4일 전, 바로 직전에 결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대팀원들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또한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팀장님은 어떻게 제작을 진행할지에 대해 수시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1막 대도구는 가구가 대부분이라, 구매보다는 최대한 나눔을 받았으며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대공연에서는 가벽을 2종 제작하여, 페인트를 구매하는 데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도구를 구하는 데에는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추가로, 제작을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미리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가벽을 새로 만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가벽을 제작할 기수가 없을 것 같으니 가벽 제작과 관련해서는 따로 기록해 두지는 않겠습니다. 이후 기수에서 혹시라도 가벽을 제작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4. 무대 설치

벽을 먼저 다 설치한 후 대도구를 배치,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장식을 달아주는 것이 무대 설치의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목장갑을 꼭 착용하세요!

4-1. 용달

극장으로 대도구와 가벽 등을 용달을 이용해 운반합니다. 용달은 극장 대관 첫날 아침 일찍 불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때, 동방에서 용달에 짐을 올려보낼 인원과, 극장에서 용달을 받을 인원을 미리 나눠 두어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거의 경우, 19시 공연일시, 21시 30분에는 용달을 불러야 합니다. 벽, 천과 같은 큰 구조물을 먼저 정리 후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철거의 경우 주말 밤 늦은 시간일 확률이 높으니, 학교 경비실에 미리 연락해 학생회관 이용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빛과소금용달: 010-4843-0939

공유화물: <https://www.1800-9924.com/index>

샌디:

<https://sendy.ai/?NaPm=ct%3Dltwfwveq%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edcd133fd9a486e351562c754cd3aa958938ccfe>

4-2. 가벽 설치

극장 작업 시작 전에, 무대의 중심, 벽의 위치, 대도구의 위치를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한 후 시작하세요. 가벽의 경우, 극장에 벽을 설치할 수 있다면 각목으로, 아니라면 극장 천장에 철사를 이용하여 벽을 매단 후, 케이블타이와 각목으로 서브 지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각 벽의 뒷면에 날일자로 붙어있는 각목들과 벽 사이의 빈틈에 철사를 끼워 넣고 한 바퀴 돌려 감아 고정시킨 후, 철사의 반대편 끝을 공연장 천장의 파이프 등에 연결해주세요. 벽들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봐주며 위치를 조절해야 하고, 벽들끼리 떨어지는 경우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양옆을 마찬가지로 각목의 틈새를 통해 함께 감아 묶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벽을 천장에 매달아 고정시켰으면, 바닥 부분에 각목으로 삼각형 형태로 지지대를 만들어 위아래로 모두 지지해 주고, 이 지지대들은 바닥에 청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벽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캐스트가 백스테이지에서 각목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각목들과 그 주변에 야광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대도구도 마찬가지이니, 리허설을 진행하는 동안 야광테이프가 필요한 부분에 계속해서 붙여주세요.

추가로, 캐스트가 등/퇴장 시 어느 정도까지가 객석에서 보이고 안 보이는지를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4-3. 대도구 배치

가벽을 모두 설치했다면, 대도구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이번 126회 겨울대공연에서는 화물용 팔레트를 사용했는데, 화물용 팔레트 사용 시 팔레트 위에 합판을 깔고, 칸 합판들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화물용 팔레트와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팔레트를 여러 개 사용한다면 팔레트끼리도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서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5. 공연 기간

공연 기간에는 사실 무대팀이 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공연 전에 거의 모든 일이 마무리됩니다. 하자가 생긴 대도구나 가벽을 보수하는 일, 지지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보수하고 더욱 단단하게 고정하는 일 등, 정확히 말하면 공연 전과 후에만 상주하면 됩니다. 공연이 돌아가는 중에 무대팀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대공연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연 중 무대 가벽을 이동시키는 역할로 무대 오퍼를 맡았습니다. 따라서 공연마다 상주 스케줄을 공유해 팀장 포함 3명씩 상주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팀장 포함 2명이 상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연 기간 내에 팀장은 거의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126회 겨울대공연의 경우 2시 공연은 10시 콜타임, 7시 공연은 4시 콜타임으로 상주했습니다. 공연 기간 동안 무대팀이 극장에 상주하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벽 페인트칠 확인 및 보수
- ② 지지대 및 철사 고정 확인
- ③ 대도구 하자 확인 및 보수
- ④ 무대 위 잡동사니 치우기

6. 마무리하며

아무리 정확한 그림을 그린 후 작업을 시작해도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출 또는 다른 키스텝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돌발상황들은 당연하게도 만연하며, 미리 세워두었던 계획과 충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꼭 멘탈을 붙잡으세요.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팀원에게 보이게 된다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연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무대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팀원에게 보인다면 팀 전체가, 그리고 다른 팀에게까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 챙기며 공연을 준비하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무대팀장님들께,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어 앞으로 좋은 무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6회 겨울대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두었던 무대팀 플랜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연 시작 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 그리고 공연을 마무리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가 공연을 준비하며 간략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126회 겨울대공연 무대팀 플랜

*개인 스케줄 확보 + 거주지 파악 및 회의 장소 정하기

*무대팀 예산 파악

*대본 숙지 중요

*극장 답사 : 공간이나 대도구의 스케일과 관련된 수치 측정

최대한 빠르게 방문해야 무대 구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음

*캐스트 연습 참관 (캐스트의 동선 파악!) + 철야 연습, 시연회 참관

*공연 주간 상주 스케줄 확보

*팀원이 뭉치는 것 중요,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잘 묻고 들어야

*무대 디자인 구체화 후 모델링을 통해 키스텝 회의 때 피드백. 수치 중요

*연출팀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수적. 연출이 원하는 분위기나 대도구의 위치 미리 파악

무대 공간을 실내/외로 나눌 것인지, 한 공간에서 대도구로만 공간의 차이를 표현할 것인지,
무대 좌/우를 나누어 다른 공간을 표현할지 등등을 연출진과 합의

*제반조사 : 동방에서 보유중인,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재료를 확인하는 절차

/ 사용 가능한 각목과 사용 불가능한 각목 분류하기

/ 저번 공연에서 벽을 많이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합판으로 새 벽을 만들어야 함

/ 벽의 종류 : 온벽(1.2m x 2.4m), 반벽(온벽의 절반 크기)

/ 해화에 위치한 동명전기철물에서 페인트, 목장갑, 붓, 철사 등 구매 가능

< 공연 포함 총 10주차, 주간 플랜 >

1주차 : 자기소개 및 아이스 브레이킹, 무대팀 플랜 공유, 개인 스케줄 확보

@대본 정독, 무대 레퍼런스와 대도구 조사

2주차 : 무대 스터디, 대본 분석 및 장면에 맞는 레퍼런스와 대도구 찾아오기

@무대 아이디어 스케치 및 대도구 디벨롭해오기

3주차, MT 주간 : 아이디어 스케치 공유 및 피드백

찾아온 레퍼런스 및 스케치 공유하고 최종 초안 그려보기

필요한 대도구 정리 및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나누기

4주차 : 최종에 가까운 무대 아이디어 스케치 피드백 후 최종 초안 뽑기

재료의 경우 구매처 링크 공유까지, 온라인 재료 구매, 대도구 구하기 (당근마켓도 이용)

5주차 : 초안 디벨롭 및 완성, 최종안 결정

무대 전체 설계 공유 및 수정 사항 피드백, 제작도 최종 결정

오프라인 재료 구매

*천, 전구 기타 등등은 동대문 또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됨

6주차, 설날연휴 주간 : 대도구 및 벽 제작

7주차 : 대도구 및 벽 제작, 공연 기간 상주 스케줄 확보

8주차 : 대도구 및 벽 제작

9주차, 시연회 : 대도구 및 벽 제작 완료

10주차, 공연 주간, *개강 이후 : 대도구 설치 및 무대 세우기, 완성

*교내 극장의 경우 철야 작업 불가 참고

< 무대 설치 플랜 >

*용달 예약 (1-2주 전에 예약) : 무대 설치 아침 일찍 용달 이동

빛과소금용달: 010-4843-0939

공유화물: <https://www.1800-9924.com/index>

*마스킹 테이프 : 무대의 중심 / 벽의 위치 / 대도구의 위치 잡기

/ 극장에 벽을 설치할 수 있다면 각목으로, 아니라면 극장 천장에 철사를 이용하여 벽을 매단 후, 케이블 타이와 각목으로 서브 지지대를 만들어 주기

/ 각 벽의 뒷면에 날일자로 붙어있는 각목들과 벽 사이의 빈틈에 철사를 끼워 넣고 한 바퀴 돌려 감아 고정시킨 후, 철사의 반대편 끝을 공연장 천장의 파이프 등에 연결

/ 벽들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봐주며 위치를 조절해야 하고, 벽들끼리 떨어지는 경우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양 옆을 마찬가지로 각목의 틈새를 통해 함께 감아 묶어주기

/ 모든 벽들을 천장에 매달아 고정시켰으면 바닥 부분에 각목으로 삼각형 형태로 지지대를 만들어 위아래로 모두 지지해주고, 이 지지대들은 바닥에 청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킴

/ 캐스트가 백스테이지에서 각목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각목들과 그 주변에 야광테이프 붙이기

/ 캐스트가 등/퇴장 시 어느 정도까지가 객석에서 보이고 안 보이는지를 표시해 두면 좋음

/ 벽을 먼저 다 설치한 후 대도구를 배치, 추가적인 장식을 달아주는 것이 무대 설치의 순서

*화물용 팔레트 사용 시

/ 합판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화물용 팔레트와 연결해 주어야 함

< 무대 철거 플랜 >

***용달!**

*목장갑 착용

*벽, 천과 같은 큰 구조물을 먼저 정리 후 밖으로 옮기기

*학교 경비실에 미리 연락. 학생회관 이용 관련